

6 '청년은 지금' 특별기획 - ②청년정치

90-00년대 생들이 가지는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리더로 부각되고 있다. 중장년층이 대부분의 조직에서 우위를 점했던 과거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우리신문은 총 7회에 걸친 현재 기획 '청년은 지금'을 준비했다. '청년은 지금' 기획은 대부분의 대학생에 해당하는 90-00년대 생들과 관련이 있는 건강,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하는 코너다. 청년들이 알면 좋을 지식부터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청년들의 움직임까지 관련된 현상 전반을 전하고자 한다.

① 청년의 정신건강
② 청년정치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는 청년세대의 참여, 특히 정당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사진:언스플래쉬)

진짜 청년의 새로운 정당정치를 위하여



김 윤 철
후나티스클리지 교수

청년세대의 정치적 소외

들에서는 30-40대 정치인들이 정부 수반으로 당선됐고, 정당정치에도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신생 정당의 창당 및 부상이 진행됐다.

'이준석 현상'의 진실

최근 한국에서는 36세(1985년생)의 '청년(?)'이 준석이 제10당의 대표로 선출되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선출직 공직을 수행한 바가 전혀 없다. 즉,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게 아니라 여야 선거개입에서의 승리를 위한 정략적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다. 이 때문에 이준석의 당 대표 당선은 청년 대표성 강화의 차원에서 평가하기 어렵다.

청년활동제 효과 없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도 최근 해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청년 대표성 문제가 보다 심도 깊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주목할 것은 그런 중에 청년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이론적-실천적

전문위원회)의 연구(여론으로 본 정치적 세대교체: 오해와 진실)에 기초해 볼 때 실제로 이준석은 청년 당원들의 지지가 아니라 당 안팎의 강한 보수성향의 기성세대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이를 기성세대는 정권교체와 당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당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준석을 선택했다. 즉,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게 아니라 여야 선거개입에서의 승리를 위한 정략적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다. 이 때문에 이준석의 당 대표 당선은 청년 대표성 강화의 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활동제 효과 없다

그런데 이때 포착해야 할 진짜 문제는 있다. 선거제도는 선거연령이든 청년 활동제든 그것의 실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이라 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리는 '1968혁명' 이후의 정당정치가 그 대표적인 예다. 1968혁명을 주도했던 청년들은 독일의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정

집근이 갖는 한계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청년 정치 대표성에 대한 기준의 연구들과 실천은 주로 의회 내 양적 비중이 현저히 낮은 특징에 주목하고 구성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제 도입과 선거제도에 우선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 비례대표 선거제도, 괴선거권 연령은 상관이 있는 반면, 여성을 활동제와 달리 소폭 적용된 청년 할당제는 대표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정치를 이룬 청년 정당참여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는 청년세대의 참여, 특히 정당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반전평화, 생태 환경, 양성평등 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리는 '1968혁명' 이후의 정당정치가 그 대표적인 예다. 1968혁명을 주도했던 청년들은 독일의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정

당정치에 도전했다. 그리고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같은 기성 거대 정당들은 이들이 제기한 이슈 등을 포용하고 흡수했다. 1968혁명 이후의 정치에서 눈여겨볼 것은 청년 주도로 활성화된 사회운동 중,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치 조성에 기여하고 영향을 끼친 것은 독일의 녹색당과 같이 정당정치에 참여한 세력이라는 것이다. 현실의 정당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은 적군과처럼 급진과 격화되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국 사멸했다. 정당을 조직한 세력들 중에서도 러시아 혁명 당시의 볼세비키같이 소수 전위정당 노선을 택해 선거정치 등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에 반대하거나 그 중요성을 경시하며 반체제 정당을 친명했던 세력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당의 고유성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제도로서 정당의 '고유성'이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좋은 듯한 정당을 통해 작동한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것은 그런 중에 청년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이론적-실천적

에 참여하거나 새로이 만들기까지 하면서 정당정치를 펼친다. 왜 그럴까? 정당이 특출한 그 무엇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의 작동 그 자체- 즉 정치의 보편적 성격 그 자체-가 정당이라는 조작형태를 필요로 하고 만들기 때문이다. 정치는 이념 정책, 다수의 지지를 통해 작동한다.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념과 정책의 형성을 위해서도 않은 세력들은 적군과처럼 급진과 격화되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국 사멸했다. 정당을 조직한 세력들 중에서도 러시아 혁명 당시의 볼세비키같이 소수 전위정당 노선을 택해 선거정치 등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에 반대하거나 그 중요성을 경시하며 반체제 정당을 친명했던 세력들도 마찬가지였다.

반(反)정당정치 현실에 순응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는 '혐오산업'으로 불린다. 청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당은 권력욕에 불타는 음모가들의 집합

체인 것처럼 묘사된다. 정당정치에 대한 국내 언론 기사 대부분은 어떤 이념과 정책적 지향성을 놓고 논쟁하는지 아니라, 누가 어떤 파벌에 속하는지, 또 어떤 정치인과 파벌 간의 배경이 오가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이는 정당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증폭시킨다. 현실의 정당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청년은 '새로움' '도전' '미래'와 연결되어있는 용어다. '영원한 청년' 혹은 그 반대로 '애 늙은이' 같은 수업에서 각자 혹은 모둠별 관심 주제 영역을 정할 때 정치를 선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에 없는 경우도 빈번하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대(大) 학생인데도, 정치는 학생 신분으로서 멀리 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현대 문명세계에서 발생했던 거대정치변동, 특히 민주화의 핵심 주역이 청년학도였다

는 사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청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후위기와 코로나19와 우주개발 등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시대에 미래 삶을 설계하고 개척해가야 하는 청년들은 이런 반정당정치적 현실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살릴 세계를 스스로 만들 기회를 차고는 데에서만 자기결정권을 행

사할 수 있을 뿐이다.

청년의 의미

줄 서지 말고 만들어라

깊고 넘어갈 것이다. 청년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다. 청년은 생물학적 의미만을 지니는 용어가 아니다. 그저 '어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년은 '새로움' '도전' '미래'와 연결되어있는 용어다. '영원한 청년' 혹은 그 반대로 '애 늙은이' 같은 수업에 있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변경하는 데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와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다수의 관심과 지지를 획득 할 힘 말이다. 다만 명심할 것이 있다. 그러한 관심과 참여가 현재처럼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인 입문 과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미래 가치와 비전과 전략을 담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이념과 정책을 생성하는 것 이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 한지를 중심으로 기성 정당에 들어갈지,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 기성 정당에 들어가 활동한다 해도 꼭 명심해야 한다. 줄 서지 말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좋았던 옛날 것보다 나쁘지만 새로운 것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